축제와 운명의 장소

요령(搖鈴) 소리는 여전히 귓전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슬픈 가락도.

인제 가시면 언제나 오시요

동지 섣달 설한풍에

멍석 딸기가 피면 오시요 —

먼 먼 옛날의 먼 먼 고향 황톳길을 상여가 간다. 요령잡이가 구성 진 음성으로 또 가락을 뽑는다.

북만 산천이 머다 해도

건넛산이 북만산이요

이 길 한 번 떠나면

영결 종천 마지막이다.

어--- 어 하아아 어 하아아

상두꾼들이 구슬프게 받아 목청을 뽑는다.

유소보장(流蘇寳帳) 꽃수레가 양장(羊腸) 같은 황토 산길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며 간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으면서 푸른 빛은 없고 노르께하고, 원색(原

色) 꽃술을 두른 꽃상여도 찬란한 오색 위에 한 꺼풀 노란 물을 씌운 것처럼 노란 빛에 묻혔다. 마른 황톳길에 이는 노란 먼지 속을 흰 옷 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전옥희 여사는 나무에 기대 서서 상여를 눈으로 쫓았다. 상여가 가는 길은 고향의 황톳길인데 서 있는 곳은 보지 못하던 땅이라고 느꼈다. 그러고 보니, 자기는 고향 언덕길에서 칡뿌리로 입 언저리를 더럽힌 채 상여를 바라보던 종종머리 조무래기가 아닌 것이다.

젊어서 즐겨 입던 자주 치맛자락이 눈 아래에 흘러 있었다. 여기가 어딜까? 눈을 들어 보았다. 보지 못하던 하얀 꽃들이 머리 위를 덮고 있다. 희고 향기도 없으면서 요염한 꽃송이가 은빛 꽃술을 무겁게 달았다.

옥희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아이 고와, 무슨 꽃일까?"

누군가가 속삭였다.

"은행꽃이야, 은행꽃."

"은행꽃이라구요? 나는 처음 보아요."

옥희는 손을 꽃 쪽으로 뻗쳤다.

순간 그는 으악 비명을 질렀다. 하얀 꽃 쪽으로 뻗었던 자기 손이 그대로 백골(白骨)이었던 것이다.

모진 바람이 일어나며 꽃이 마구 떨어졌다. 그는 힘없이 꽃 위에 쓰러졌다. 땅에 떨어진 꽃잎은 그대로 노오랗게 단풍진 부채 모양의 은행잎들이었다.

저쪽편 황톳길을 가는 상여에서 요령 소리가 쩔렁거렸다. 그러다 가 그것은 아주 귓전 가까이에서 마구 소란을 떨었다.

"훅."

전옥회 여사는 눈을 떴다. 천장 한가운데에 양 끝이 꺼멓게 탄 형 광등이 켜져 있고, 요령 소리는 한 칸 건너 침대에서 요란하게 울리 고 있었다. 창 가까운 구석 침대에 누워 있는 언제나 말수가 없는 복막염 환자를 빼놓고는 모두 잠이 깨어 있었고, 더러는 팔꿈치로 베개를 누르고 상반신을 일으킨 사람도 보였다. 중이염 수술을 한 손녀를 간호하고 있던 마산 할머니는 침대 아래에 놓았던 깡통에 소변을 보고 나서 잠이 덜 깬 소리로

"귓구멍이 매키잇나, 저리 종을 흔들어쌌는데 모르는 척하기이가." 하고 혀를 찼다. 그리고 고쟁이 뒤를 여미며 종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와, 또 아파 오능교? 오기 싫어하지만 참말로 몬 참게 아푸문 내가 간호사한테 가 주꾸마?"

환자는 대답이 없다. 어두우면서 파아란 형광등빛 아래 눈이 움푹 팬 얼굴이 촉루같이 여위었다.

굳게 감긴 눈은 주름에 묻히고 주먹 쥔 왼손의 엄지를 앞니로 물고 있다. 오른편 손이 머리맡의 종을 움켜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었으 나, 그것은 사람을 부르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견디려 는 안간힘으로 보였다. 담석증 환자인 그녀는 돌이 내릴 때마다 그렇 게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었다.

마산 할머니가 부르러 가기 전에 문이 열리고 깡마른 간호사가 들어왔다. 당번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새벽 두 시의 호출이 달가울 리는 없다. 백의(白衣)는 입었지만 천사(天使)의 표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얼굴이다.

"아니 주사한 지가 두 시간두 못 됐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숙직실은 떨어져 있구, 숙직 선생님이 오신다구 별수없으실 거구."

당연한 말인지 모르나 듣는 쪽에서는 무성의하게만 들려, 몇몇 쌍의 눈들이 험한 빛을 띄우며 그녀의 얇은 입술을 지켰다. 간호사는 짜증만 나는 모양이다.

"하여튼 사람을 보낼 테니 종은 고만 흔들어요. 남까지 잠을 못 자게 뭐예요?"

"그게 간호사의 말이에요?"

말을 받고 나선 것은 당자가 아니고, 가운데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여직공이다. 나이는 스물들,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벨트에 팔이 말려들어가 왼팔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처녀다. 야무진 얼굴 에 남은 것은 독밖에 없다. 나가려는 자세로 얼굴만이 이쪽으로 돌린 채 간호사는 싸악 긴장한다.

"그럼, 어떤 말이 간호사의 말이죠?"

"좀 친절하란 말이에요. 뭐예요? 무료 환잔, 그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뭐라구요?"

간호사는 몸 전체를 바르르 떤다.

"너희 돈으로 치료해 주는 거야? 나랏돈이야! 너희 걸 쓰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랏돈 먹긴 너나 우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쪽은 독이 올라 남은 손으로 삿대질까지 한다. 중이염 수술을 한 열 살짜리 소녀가 눈이 똥그래지며 할머니 손으로 꼬옥 쥐었다. 반쯤 열린 문 밖에 어느새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 사람 틈을 헤치고 좀 나이 든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입술이 새파래져서 바르르 떠는 젊 은 간호사의 어깨를 밀어 방 밖으로 내보내고, 악을 쓰고 있는 외팔 여직공 쪽은 무시한 채, 담석증 환자 침대머리 앞에 가 섰다.

"당번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러니깐 잠깐만 참아 주세요. 네?" 간호사는 부드럽게 타이르고 자세를 고치며

"지금은 새벽 두 시예요. 모두들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해 주세요."

하고는 조용한 얼굴로 복도로 나갔다. 복도의 사람들도 자기 방으로 흩어져 들어가고, 소란 속에 묻혔던 담석증 환자의 신음 소리가 다시 또렷해 왔다.

당번 의사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흥, 불여우 같은 년! 의사한텐 연락두 않구."

여직공이 또 씹어 뱉듯 말을 던진다.

그러나 아무도 대꾸가 없다. 소동 바람에 잠이 깨어 각기 소변을 보는등, 목을 축이는등 하던 사람들도, 새벽 두 시의 곤한 잠에 다시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장본인인 담석증 환자까지도 진땀과 신음 속 에서 괴로운 잠에 빠져 갔다. 입 안에서 종종거리던 여직공의 숨결도 깊은 잠에 빠진 고른 호흡이 되었다.

후두둑---창 유리를 때리는 바람 소리가 두드러져 왔다.

전옥희 여사는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꿈에서 본 은행꽃이 눈앞에 떠올랐다. 맑고 향기도 없으면서 요염하고 무거운 꽃 모습, 그것은 유계(幽界)에서나 필 듯한 꽃들이었다.

"은행꽃은 아무도 모른 새에 핀단다. 죽어 갈 사람 눈에만 보이지, 산 사람은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야."

어려서 옛 노인에게 들은 말이 되살아 왔다. 그러면서 잔잔한 대로 있는 마음을 자기도 알 수 없었다.

병들어 이곳에 몸을 의탁한 지도 달포가 넘었다. 죽음은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손안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손에 새겨진 손금을 평상시에 의식하지는 않는다. 손금이 문제가 되는 때란 거기서 어느 의미를 읽으려는 때인 것이다.

전옥희 여사는 사람이 손에 손금을 쥐며 무심하듯, 죽음을 안고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

다만 가슴이 답답하다. 의사는 기관지가 좀 상한 모양이라고 할 뿐,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별다른 처치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 불려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과 대소변 검사가 되풀이된다. 어쩌다가 갖다 주는 대로 이름도 모르는 약을 그녀는 충실히 먹는다. 공연히 설사를 하기도 하고 까닭 모르는 열이 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침대에 누워 있긴 송구스럽다고 남몰래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한 생활이면서 몸이 급속도로

여위어 간다.

"긴장이 풀리니깐 오히려 살이 내리나 봐."

혼자 중얼거리며 들여다보는 손등에 검버섯이 솟은 것이 눈에 띄었다.

무료 환자로서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굴욕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저항(抵抗)을 잃은 마흔아홉이라는 여자의 나이가, 체념이라기보다 아무 감개도 없는 이완(弛緩)을 가져와, 그 이완 위에 치마끈을 푼 채 누워 버린 것이다.

그래도 구석에 끼어 남은 자존심과 허영의 찌꺼기가 칭얼거릴 때가 있으면, 그녀는 달이 갈리며부터 그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된 귀여운 송 간호사에게 곧잘 자기 말을 하는 것이었다.

"글쎄, 내 병이 뭐 그리 중태유? 친구들이 좀 쉬라구 극성을 부려들어오긴 했지만 헐일두 많구 이러구만 있을 때가 아니라우. 우정이고마워 못 이긴 체하구 있는 거지. 글쎄, 우리 친구들은 내가 너무 청렴 결백해서 고생을 한다구 안타까워서 야단들이라우."

그러면 갓스물 난 송 간호사는 앳되디 앳된 얼굴에 의젓한 표정을 띄우며

"몸만 회복되시면 얼마든지 활동허실 텐데, 들어오신 김에 푹 쉬 시는 거죠 뭐."

하는 것이었다.

전옥희 여사는 이 귀여운 어린 간호사에게 마음이 쏠려 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일찍이 느껴 보지 못하던 감정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사랑'에 '염려'를 곁들인 심정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소동 속에서 전옥희 여사는 송 간호사도 간호사인 이상오늘 같은 봉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이 아팠다. 어린것이 한참 자고 싶은 나이에 밤을 새는 것만도 애처로운데 심야의 매리(罵詈), 폭언——그녀는 고개를 젓고 감았던 눈을 떴다. 잠은 완전히 달아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를 박박 간

다. 중얼거리며 입맛을 쩍쩍 다시는 건 마산 할머니인 모양이다.

전옥희 여사는 변의(便意)를 느끼고 침대에서 내려섰다. 발로 신을 더듬어 신고 흐트러졌던 옷깃을 여몄다. 그녀는 이 방에서 깡통에 소변을 보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복도 끝에 있는 변소는 언제나좀 음산하지만 전옥희 여사는 깊은 밤에도 거기까지 가서 일을 보는 것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언뜻 맞은편 서병동(西病棟)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모두 말들이 없다. 말없는 군중이란 까닭 없이 무 섭다. 더구나 심야의 병원 복도에 사람이 모인다면 뻔한 일이다.

예측한 대로 모였던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리며 들것을 마주 든 병 원 잡역부가 나타났다. 들것 위에는 하얀 흩이불을 씌운 무거워 보이 는 물체가 실려 있다. 전옥희 여사는 머리털이 곤두서면서 요의(尿 意)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누를 수가 없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는 몹시 어려운 일이나 치른 뒤처럼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가 누웠다. 괴괴하다고만 생각했던 병원의 밤이 갑자기 갖가지 음향으로 차 오는 것 같아 숨이 찼다. 공기가 너무나 불결하게 농밀하다. 멀고 가까운 방에서 기침 소리, 신음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누르고 누른 오열 소리는 좀 전의 들것에 실려 나간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퍼져 나오는 것이라고 느끼자 전옥희 여사는 정신이 혼돈해졌다. 그 혼돈 속에서 기묘한 상념이 떠오르고 있었다.

저마다가 저마다의 직물을 짜고 있다는 환각이었다. 삶을 날로 하고 죽음을 씨로 쉴 새 없이 짜는 인생이라는 직물——절대로 완성이 있을 수 없는, 언젠가는 중단되어 툭 끊어져 버릴 허무의 직물.

전옥희 여사는 왈칵 두려움이 솟았다. 무참히 끊어져 실오라기가 얽히고 헝클린 채 먼지를 쓰고 있는 자기의 직물이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거기 삶과 죽음에서 동시에 밀려 나가 있는 자기를 보았다

고 느낀 것이다.

어디서부터인지 또 요령 소리가 들려왔다.

간밤에 당번을 맡지 않았던 미연은 흐뭇한 잠으로 흑진주 같은 눈이 더욱 맑고 곱다. 앞머리를 이마에 약간 내리고 눌러 쓴 간호모도, 새벽에 갈아 입은 간호복도 눈같이 희다. 가슴에 환자들의 차트를 안고, 남은 손에 손잡이가 달린 뚜껑 없는 나무상자에 반창고로 칸막이를 만들어 체온계를 꽂은 글라스를 담아 들고 형식적인 노크 끝에 6호실로 들어섰다.

"안녕히들 주무셨어요?"

언제나처럼 맑은 음성으로 아침 인사를 건네며 미연은 어딘지 수상치 않은 공기를 재빨리 감취했다.

여느 때 같으면 이른 아침 검온 땐 대개 환자들은 잠이 깨어 있지 않든지 눈을 떴더라도 이불 속에 누워 있을 텐데 오늘따라 모두 자리 에 일어나 앉아 있고, 병원에서 입히는 몸에 맞지 않는 푸르뎅뎅한 환자복을 입은 외팔 여직공이 방 가운데 서서 무어라고 흥분하여 지 껄이고 있었다.

"이것이 비인도적이 아니구 뭐예요! 네, 가난한 놈은 죽어서 시신두 제대루 지니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린 참을 수 없어요."

앞의 말은 듣지 않았으나 미연에겐 이내 짐작이 갔다. 간밤에 죽은 시료 환자(施療患者)의 시체가 부검(剖檢)을 받게 된 것을 어디선지 듣고 와서 떠들고 있는 모양이었던 것이다.

활시위처럼 긴장이 오는 것을 느끼며 미연은 언제나처럼 명랑한 태도를 흐트리지 않았다. 다음이 바쁘다는 표정으로 재빨리 체온계 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녀는 하얀 나비처럼 가볍게 병실을 뛰어나 갔다.

그러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 즉시로는 다음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급한 바람에 체온계도 거두지 못했다. 우선 검온으로 일

단 험해진 공기를 약간이라도 누그린 후 다시 들어가리라고 마음먹고 잊었던 것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간호사실로 돌아갔다.

여느 때 같으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수간호사가 책상 위에 꽃을 고 쳐 꽂다가

"아, 송 간호사, 아까 기숙사로 전화가 왔었는데." 하며 이쪽을 본다. 새벽 여섯 시에 전화라면 누구한테설까—— 묻기 전에 수간호사가

"사촌 오빠라나, 점잖은 소리드먼."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손을 빨리 놀리며 꽃을 만진다.

미연은 귀뿌리까지 빨개졌다.

새벽 여섯 시에 기숙사에 전화를 걸다니. 대담하기두. 그러나 민 감한 악기처럼 몸 전체가 행복에 차며 울리기 시작한 것만 같다.

"오빠가 무슨 일로 새벽부터……"

일부러 걱정스러운 듯 뇌이다가 발을 돌려 6호실 문을 두드렸다. 6호실의 공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다. 외팔 여직공의 적의 에 찬 눈초리만 없으면 그대로 잠잠한 편으로 보였다. 담석증 환자도 이제는 고비를 넘겼는지 부석부석한 얼굴로 일어나 앉아 있다. 미연 은 차례로 체온계를 거두어 열을 차트에 기입하고 맥을 짚었다.

창 옆에 누워 있던 전옥희 여사 차례가 왔다. 전 여사는 밭은 기침 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기침을 하시죠?"

미연은 전 여사의 여윈 손을 무게라도 다는 것처럼 조용히 들어 올리며 물었다.

"뭐,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하며 전 여사는 간절한 눈으로 미연을 올려다본다. 혈색이 말이 아니 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글쎄, 아무것두 않구 있으니깐 잠이 올 리 있수?"

"독서를 많이 하시는군요."

머리맡을 훑어보고 미연은 친밀한 시선으로 전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독서라구 할 수 있을는지."

전 여사는 얼굴을 붉혔다. 가엾다고 미연은 생각했다. 며칠 전에 들었던 말이 상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의 일이었다. 회진 전에 간호사실에 들른 과장 선생님이 전옥희 여사의 차트를 상세히 조사한 후,

"호음."

하고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다. 궁금한 듯이 차트로 눈을 가지고 가는 레지던트에게 과장은 청결한 굵은 손가락으로 몇 군데를 지적하며 설명을 한 후,

"말기임엔 틀림이 없는데, 자각 증상이 좀·····." 하고 말을 흐렸다.

그러나 미연이 전 여사를 가엾어 하는 이유는 그 차트에 쓰인 병명이 불치의 폐암이라서가 아니다.

어느 날 밤, 같은 방에 있는 황 간호사가 자기 전에 얼굴을 씻다가 문득,

"그 전옥희 씨 말이야. 불쌍하지?"

하고 비누가 묻은 얼굴을 들었다.

"왜?"

"폐암이야, 그이."

"수술할 수 없나?"

"수술이야 물론 하지, 허지만 살아서가 아냐."

"뭐?"

"그인 부검 받기루 돼 있어. 그렇게 서둘러서 자기를 병원에 넣어 주었다구 고마워 하는 친구들이 말이야, 그래두 좋다는 약속을 암암 리에 했대." 미연은 자리옷 단추를 끼던 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그럴 수가……"

"있으니깐 무서운 일이지."

황 간호사는 부르릉 얼굴을 헹구고 수건질을 하면서 책상 앞에 앉은 후

"그이 때문에 친구들이 무척 골칠 앓은 모양이더라. 사람두 좋구 보통 여성보다야 교양도 있구. 허지만 곤란한 데가 있다나 봐."

"병실에선 제일 모범 환잔데."

미연이 입 속에서 뇌였다.

"허지만 좀 괴상하잖아? 시료 환자가 너무 고상하게 굴려니깐 싸이지두 않구. 처음엔 그런 것두 좋아 뵈지만 어딘지 뭐랄까, 좀 곤란해. 하여튼 친구들두 한없이 도와 줄 순 없는 데다가 암이구 보니 긴병에 누가 임종까지 봐 줄 수 있겠니. 반 년이 걸릴지, 일 년이 걸릴지, 친구들도 박절하다구만 헐 순 없어."

— 박절하다구만 헐 순 없어 — 황 간호사 말을 되새기며 미연은 창 쪽으로 체온계를 비쳐 보았다. 수은주는 6도 7부까지 올라 있었다. 그녀는

"열은 내렸어요."

하고 생긋 웃었다. 역시 마음이 아팠다. 자주 오는 설사, 때없이 오르내리는 열이 반드시 병의 징후만이 아닌 것을 미연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불치의 무료 환자에게 시험해 보는 갖가지의, 아직은 자신 없는 약들이 전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미연은

"그렇게 여러 가지 약을 써 주시는데 열이 왜 내리지 않겠어요?" 하고 감사하다는 표정을 짓는 전 여사의 얼굴을 정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창 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은행잎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하고 화제를 돌렸다.

"오늘은 참 날씨가 좋군요. 더러는 바람도 좀 쏘여 보시죠."

바쁜 아침 일과에 그만큼 한 대꾸도 큰 대접이었지만, 미연은 방을 나오며 왠지 "박절하달 수는 없지." 하던 황 간호사의 말이 상기되어 저도 모르게 가볍게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새벽 여섯 시에 전화를 걸어 오도록 성급해 보였던 종민에게서는 정오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미연은 환자들의 배선(配膳)을 거들면서도 자꾸만 얼굴이 달아올랐다.

종민은 지난봄에 어느 쉬는 날, 여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간 하이킹에서 만난 청년이었다. 미연의 친구의 대학 친구의 오빠라는 이청년은 종시 말이 없었으나 은연중에 일행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값진 옷을 손질 않고 함부로 걸친 것이 어린 미연에게는 멋져 보였다. 그녀는 낡은 의복을 정성 들여 다려 입고 온 자신이 쑥스러워부끄러웠다. 미연은 되도록 그 청년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리다시피 피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튿날 병원으로 자기를 찾아온 그를 보았을 땐 궁지에 몰리기나 한 듯 울상이 되어 있었다. 종민은 다갈색 폴로 셔츠에 같 은 색 계통의 바지를 아무렇게나 입고 어쩔 줄을 모르는 미연을 따뜻 한 눈으로 바라보며 역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주머니에서 초록색 수첩 하나를 꺼내어 그녀에게 건네며 단 한 마디 "찾으셨죠?"

하였던 것이다.

미연은 치명상이나 받은 것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그것은 오늘 아침도 그녀가 찾고 있던, 언제나 그녀가 갖고 다니는 조그만 수첩이었던 것이다. 종민은 볼 일이 끝났다는 얼굴로,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대꾸조차 기다리지 않고 발을 옮겨 놓는 것이었다. 당황하여 뒤

를 쫓으려는 미연에게 그는 별안간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다.

"누구냐구 허기에 사촌 오빠랬지요. 하하……"

미연은 현기증이 나는 것처럼 눈앞이 아롱거렸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여학교 국어 교사였던 어머니를 사변 때한꺼번에 잃고, 외가에서 자란 미연에게는 오빠도 사촌 오빠도 없다. 천애 무고의 고아면서 밝고 깨끗한 것은 역시 일종의 천성으로보인다는 말은 언젠가 외숙모가 한 소리지만, 외로우면서 명랑한 소녀였다. 종민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상처처럼 아프도록 외로운 마음에 사무쳤던 것이다. 종민은 며칠 후에 또 찾아왔다. 역시 말수는 적고 손에 들고 왔던 포장지에 싼 책 한 권을 놓고 갔다.

끌러 보니 릴케의 시집이었다. 미연은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그책을 끌어안았다. 그 수첩에 써 놓았던 릴케의 시를 그가 읽은 것을 알았던 것이다.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는가 햇빛처럼 꽃바람처럼 또는 기도처럼 왔는가

행복이 반짝거리며 하늘에서 풀려 와, 날개를 거두고 꽃피는 나의 가슴에 크게 걸려 온 것을——

어머니의 일기장 속에서 보고, 어머니에의 뜨거운 마음으로 익혀 오던 시였다.

아무를 위하여도 꽃피어 본 일이 없는 가슴이 이제 꽃피우기 위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전쟁 때 싸운 일도 있다는 종민은 서른한 살이라고 했다. 건축과를 나와 아버지 회사일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도 무엇도 꺼리는 일이 없었다. 마음이 내키면 새벽이건 밤중이건 마구 전화를 기

숙사로 걸어 왔다. 곧잘 거짓말도 하였다.

고아로 자란 외롭고 어린 미연은, 그의 그런 태도를 자기에게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다. 그러면서 그녀의 앳되디 앳된 얼굴 에 문득 그늘 같은 것이 스칠 때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흔히 있듯 이, 소녀의 얼굴에 깃든 아련한 그늘은 잔잔한 표정에 다시없는 매력 을 얹은 것을 미연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미연은 종민이라는 사나이를 알 수 없었다. 종민은 만나도 영화나소설에서 보는 연인(戀人)처럼 달콤한 말을 한 일이 없다. 미연은 전쟁으로 고아가 되었지만, 고아도 되지 않고 싸움터에 나갔다 하더라도 다치지도 않은 종민은 미연보다도 더욱 전쟁의 상처를 받은 것 같이 보였다. 그가 전쟁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뿐일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그는 미연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때로는 만나도 담벼락을 대하듯 반응이 없기도 하고 문득 무서운 생각도 갖게 하는 그였으나, 외로운 미연은 그로부터오는 전화가 단조로운 자기의 젊음을 채색해 주는 것처럼 마음의 탄력을 느끼는 것이었다.

병원의 시간은 언제나처럼 부산히 흘러갔다. 미연은 주식이 담긴 알루미늄 쟁반을 양손에 들고 6호실에 들어갔다. 외팔 여직공이 웬일인지 기분이 좋아 콧소리로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 미남은 아니지만 어쩐지 나는 좋아 --- 순간, 미연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 오도록 종민이 그리워졌다. "아냐 아냐, 죽도록 좋아."

그녀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어쩐지'라는 주체성(主體性) 없는 막 연한 감정이 아니고, 확고하게 '죽도록' 사무치는 연정을 자각하였 던 것이다.

"바람이 쌀쌀한데 밖에 있어도 괜찮아?" 동대문 시장에서 저고리 제품을 하고 있는 친구는 걱정스러운 듯 이 전옥희 여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노오란 은행잎이 깔린병원 뒤뜰에서 둘은 아까부터 시들기 시작한 잔디 위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전 여사를 그래도 이따금 보러 오는 사람은 이 친구 한 사람뿐이었다.

사회에서 몇십 년 동안을 그러했듯, 전 여사는 좁은 병실 내의 몇 사람 되지 않는 요우(療友)들하고도 어딘지 어울리지 않고 있었다. 자포자기하여 독만 남은 여직공, 돌이 내릴 때면 야밤중에도 종을 마구 흔들며 법석을 떠는 담석증 환자, 남자 인턴이 들어와 있을 때도 예사로 엉덩이를 까고 깡통에 소변을 보는 마산 할머니, 팽팽히 부은 배를 안고 안간힘만 쓰고 있는 복막염 환자, 생각할수록 전옥회 여사는 자기가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 틈에 끼어 있게 되었는지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것이다. 되도록 그들과 엉키지 않도록 창가의 침대 위에서 창 쪽으로만 얼굴을 돌리고 누워 책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정말로 참기 어려운 법석이 벌어질 때는 흐려 가는 기억을 억지로 끌어 모아, 옛날에 책에서 읽은 위대한 인물들이 때를 만나지 못하여, 가난을 겪었던 일화 같은 것을 상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여기선 사람답게 지내진 못해. 하루바삐 사회에 나가서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하는 것이었으나, 의식의 깊은 밑바닥 속에는 인간 이하의 경지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안일과 방척(放擲)이 뿌리깊게 깔려 있었다.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의 기막혔던 생활을 생각하면, 전세계를 길이 여섯 자 너비 넉 자의 스프링이 늘어진 더러운 침대 하나에 축소시켜, 그대로 자기를 던져 버렸으면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학교 때부터의 친구의 얼굴을 보자 앞날을 위한 의논이 거침없이 나왔다.

"이젠 열두 내리구, 마음먹었던 일두 마쳐야겠구, 하루바삐 나가 야겠어. 양지 바른 방 하나만 좀 구해 놔 주었으면 좋겠어."

전옥희 여사는 들뜬 사람처럼 빠른 말투로 내리되었다. 엷은 늦가을 햇살에 누런 진(疹)이 앉아 보이는 얼굴에 흩어진 머리카락이 더욱 병티를 내는 모습에, 친구는 우선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 인사만 한 사람한테까지 무던 폐를 끼치고, 애를 먹이던 그 버릇이 저 모양이 되어도 고쳐지지 않았군 싶어, 오히려 맥이 풀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맞장구를 쳐 준다.

"글쎄 먼저보다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전옥희 여사는 밭은 기침을 하였다.

"좀 써늘헌 모양이지? 기침이 심허군."

"아니 그리 심허진 않어, 좀 갑갑헐 뿐이야. 그저 한 번 실컷 기침을 쏟아 버렸음 싶어."

이것만은 거짓이 없는 말이었다. 가슴이 갑갑하여 혹시나 선약(仙藥)이 있다면 우선 기침을 그치게 하는 약보다, 이렇게 가슴속에 꽉 끼어 있는 기침을 몽땅 훑어 낼 수 있도록 시원스럽게 기침이 나오는 약이 있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태를 친구에게 설명하려다 갑자기 말을 삼켰다.

그들이 앉아 있는 바로 앞을 송 간호사가 바쁘게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연 이쪽을 보려고도 않고 도톰한 귀여운 입술을 반쯤 벌린 채 눈만이 반짝반짝 빛났다.

전옥희 여사는 하던 말을 맺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 섰다. 송 간호사는 거진 달음박질로 병원 뒤 언덕으로 뛰어올라가고 있었다. 전 여사는 왠지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다. 무슨 건물인지 요 즘 새로 지은 하얀 집을 저만치 뒤에 하고, 제법 숲이 되어 있는 나 무들 사이에 어느 청년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서서 그녀를 기다리 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먼눈이라서 그런지 전 여사는 청년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송 간호사의 거동으로 보아 그가 소녀를 불러 낸 것은 명백한데 도무지 열

의가 없다. 뻣뻣하게 선 채 마지못해 당하는 일처럼, 오만하게 내려다 보고만 있는 것이다.

송 간호사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 전신으로 반가움과 기쁨을 보이며, 눈 같은 간호복 자락이 낮은 나뭇가지에 두어 번걸리는 것도 의식 못 한 채 그가 서 있는 앞까지 달려갔다. 그러나그녀는 청년 앞에서 1미터쯤 떨어진 곳까지 가자, 갑자기 태엽이 탁풀리기나 한 것처럼 딱 멈추어 서 버리는 것이었다.

송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턱을 약간 쳐들고 청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두 손을 약간 벌린 채 가슴 앞에 얹은 그 모습은 한마디로 애련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청년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랐는지는 멀리서 알 길 없었으나, 주머니에 손을 찌른 자세는 그대로 흩어지지않고, 두 젊은 남녀는 한참을 한 폭의 활인화(活人畵)처럼 그렇게 서있었다.

"얘, 바람이 점점 더 차 오는구나. 기침이 심한 모양이니 그만 들어가거라. 난 또 지금부터 셋째눔 학교엘 가야 돼."

갑자기 말없이 멀거니 먼 곳만 바라보고 있는 친구와의 따분한 대 좌(對座)가 견디기 어려웠던지, 찾아온 친구는 일어서서 치마폭에 붙 은 마른 잔디를 턴다. 전 여사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 그럼 가봐야겠구나. 미안하지만 아까 부탁한 일좀 서둘러 줘. 추워지기 전엔 나가서 자리를 잡아야겠어. 지금 구상하구 있는 것만 되면 한꺼번에 신세는 갚겠다."

친구는 앞일을 그래도 그리고 있는 그녀의 노랗게 결은 시들은 손을 보고 형용할 수 없는 감개에 잠긴다. 좀 안된 말이지만 동정보다 혐오(嫌惡)가 앞서 찾아온 것이 후회되는 것이었다.

마다는 것을 전 여사는 정문까지 배웅을 하고 비탈길을 병동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숨이 찬다. 하늘이 자꾸만 내려앉아 오는 것 같아 현기증이 난다. 오래 드러누워만 있었던 탓이라고 스스로 새기고 그녀는 쉬엄쉬엄 발을 떼어놓았다.

머리속에는 친구와의 대화는 남아 있지 않고, 성긴 숲속에서의 젊은 남녀의 자태만이 점점 커 가고 있었다. 언젠가도 본 광경이라고 느꼈다.

—— 역시 언덕의 성긴 숲속에서였다. 바다가 보였다. 언덕 저만치에는 선교사의 붉은 양관이 서 있고, 그 집 포치에 잠긴 하얀 덩굴장미가 먼 곳에서도 눈에 띄었다. 문살을 푸른 페인트로 칠한 창은 어쩌다가 광선의 각도에 따라 불이 켜진 듯 반짝였다가는 꺼지곤 하였다.

언덕 위는 온통 옥수수밭이어서, 달콤한 옥수수숲의 냄새가 바람 결에 실려 오곤 하였다. '그이'는 이 언덕을 사랑하고 만날 때는 언 제나 그 곳을 택했다. 흰 저고리에 자주 치마를 받쳐입고 언덕으로 '그이'를 만나러 가는 옥희는 갓스물이었다. 용모가 두드러지게 아 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한 재질이 뛰어나지도 않았으나, 옥희는 왠 지 자기는 친구들처럼 여학교를 마친 후에도 집에서 가사 좥은 것을 익혀 평범하게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또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기는 그런 살림 때가 묻지 않은 여성이 되리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다. 소위 '희망(希 望)'이라는 것 --- 그것은 일종의 신앙이었다. 그것은 어느 가능성 에의 신앙이 아니고, 젊음에의 신앙이었다. 누구나가 젊은 한 시절 가지는 것이나, 언젠가는 잃어버려야 하는 이 신앙에서 그녀는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태는 그 본질의 비극성에도 불구하고 가 끔 사람에게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전옥희 여사의 존재는 이제 친구 들의 빈축 거리도 못 되었다. 모두들 어이가 없어 던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젊었을 때의 전 여사를 잘 아는 한 친구는, 친구들에게 폐만 끼치면서 아직도 무슨 여류 명사나 되는 것처럼 자처하는 그녀가 화제에오를 때에는,

"그 왜, 그 사람 말이야. 지바〔千葉〕 형무소에서 죽은 그 작가, 그

사람 때문이야. 걔가 저렇게 된 것은—— 명사를 안다는 건 명사가되는 거와는 달라. 그런데 걔는 명사를 찾아서 통성명을 하곤, 지가곧 그 사람허구 동렬에 서는 줄 알거던."

사실 전 여사는 국내는 물론, 외국서 어쩌다가 이 나라를 찾는 모든 명사들에게까지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가깝게 할 기회를 가졌다.

"×× 씨하구 저번 날 차를 같이 마셨는데 다음달에 구라파루 떠나 신대요."

이런 말을 곧잘 하는 것이었다.

"×× 화백은 화제(書題)에 시들은 꽃을 즐겨서 그 아틀리에엔 언제나 시들은 꽃을 꽂은 화병이 구석에 놓여 있지 않겠어요. 참, 그 댁의 흰 털고양이가 저번 날 약 먹은 쥐를 먹고 죽어 버렸어요."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XX 화백과 전 여사가 굉장하게 가까운 사이인가 보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을 빌리면 국내외를 통하여 명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모두가 자기를 아끼며 가장 가까운 벗으로 안다는 것이었다.

이런 그녀의 버릇의 동기가 되었다는 지바 형무소에서 옥사한 유명한 작가가 바로 언덕에서 옥희를 기다리던 '그이'였다.

'그이'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청년 작가였으나, 왠지 언제나 어둡고 외로워 보였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옥희는 해변가에서 '그이'를 처음 만났다. 방학으로 도쿄에서 돌아온 사촌 오빠를 따라나섰던 한여름의 일요일 오후였다. 그들은 시민들이 모여드는 목욕탕 같은 해수욕장을 피하여 산모퉁이를 돌아 크게 물굽이가 돌아간 좁은 만(灣)까지 발을 뻗쳤다. 모래사장이 좁고 조개껍질이 많이 섞여 해수욕장으로서는 적당치 않았으나 사람이 없어 좋았다. 다감한옥희는 거기 흩어진 꽃조개가 고와 그것을 주워 모으는 데 여념이 없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른다. 옥희는 옆에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

었다.

키가 후리한 청년 한 사람이 모래보다도 자갈이 더 많은 사장에 놓인 목선에 기대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강한 햇살에 잔뜩 눈을 찌푸리고 구긴 감색 바지 한쪽만을 걷어 올리고 선 모습은 형용할 수 없는 외로움에 차 보였다. 찌푸린 눈두덩 밑의 시선은 확실치 않았으나 옥희는 드러나 있었던 종아리를 짧은 자주 치맛자락으로 좀더 내려 가렸다.

눈앞에 흩어져 있는 자갈이랑 모래, 조개껍질들이 온통 꽃조개같이 보였다. 좀처럼 찾기 어려운 꽃조개를 그렇게 보며, 등뒤의 시선이 너무 강하게 의식에 와 닿아 몸이 남의 것이기나 한 것처럼 거추장스러웠다.

얼마를 어색하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등뒤에서 사촌 오빠의 큰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대답은 들리지 않고 연거푸 같은 음성이 또 들렸다.

"언제 왔어? 온 사람두, 한 마디쯤 알려주지 않구."

역시 대답이 없다. 그래도 사촌 오빠는 기분이 상한 것 같지는 않다. 탄력이 있는 높은 소리로

"옥희야."

하고 불렀다.

너무 한군데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모래 속으로 파묻혀 들어간 발을 그냥 꽂은 채인 옥희에겐 채 시선도 보내지 않고, 그는 성급하게 소개를 했다.

"누이야, 옥희."

그리고 누이 쪽을 보며

"현민(玄民) 군. 도쿄에서 같은 하숙에 있었지. 작가란다."

문학 소녀라고 자인하고 있던 옥희는 작가라는 사람을 처음 보았던 것이다. 문학 소녀라고 자처하면서 옥희는 작품들을 읽은 것이 드

물었다. 도서관에 근무하고부터는 서적의 이름을 외우고 정리하는 것이 직업이 되었지만, 이런 일들은 더욱 그녀로 하여금 서적이 가지는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였다. 표제(表題)와 저자명을 수없이 익히는통에 어느덧 그 숱한 서적들의 내용까지 알아 버린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버렸던 것이다. 사람 입에 회자(膾炙)되는 작품이라면 그 내용보다도 그 작품이 이루어진 동기나 과정, 일화 같은 것에까지 곧잘화제를 갖고 가곤 하였다. 요컨대 작품에 갈채(喝采)를 보내는 것이아니고 그 성공에 경의를 표했던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도서 목록에 없는 현민의 작품을 옥희는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하여튼 그는 작가였다.

그리고 그녀 앞에 남성으로 선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후일의 그녀가 남들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인상을 준 뻔뻔스러움 은, 스무 살 때에는 귀여운 적극성(積極性)이었고, 평범한 소녀에게 활기를 주었다. 옥희는 무슨 구실이라도 찾아선 현민을 만났다.

현민은 말수가 드문 사나이였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할 말이 너무 벅차, 안으로 삼켜 버리고 있는 것 같은 어두운 눈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이 간직하고 있는 정열은 스무 살 난 옥희는 한 번도 읽어 본 일이 없다. 현민은 안으로 담고 있는 자기 사연은 물론, 자기의 작품의 어느 하나도 옥희에게 보여 준 일이 없었다.

현민은 고모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 식구가 번다한 서울 집을 떠나 어린 딸 하나를 슬하에 두고 쓸쓸히 지내는 고모 집에서 집필을해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고모의 집은 기생 조합(妓生組合) 바로 되여서, 종일토록 목이 쉬어 터진 노기의 구성진 가락에 얽힌 동기(童妓)들의 노오란 어린 창(唱)이며, 현금(弦琴)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런 일이 현민을 자주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게 한 것이고, 옥희의 추억은 언제나 바다와 아스라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가는 배와, 창살에 파란 페인트칠을 한 붉은 벽돌의 선교사 집 주변을배회하는 것이다. 둘은 자주 언덕에서 만났다. 약속이 없는 날도 언

덕에 가면 현민을 볼 수가 있었다. 높은 미루나무가 세 그루 나란히서 있는 풀밭에 하염없이 앉아 있는 자세는 언제나 안으로 굽어 있어, 그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무위(無爲)의 자태면서 굽은 등에 긴장이 가시지 않았던이유는 나중에 안 일이었다. 무료를 끄려고 바다를 내려다본 것이 아니었던 그를 옥희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미루나무가 바람을 받아쓰는 파아란 하늘, 사라져 가는 배, 일렁이는 물결에, 청춘과 낭만을아프게 느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현민은 잔잔한 몸가짐으로 같은 풍경을 앞두고 초려와 결의에 어둡게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그 상스럽지 않은 침착한 태도와 무표정—— 그것은 아직 행위로 옮기기 전의 활시위 같은 긴장이 깃들인 것이었으나, 스무 살의 첫사랑에 취한 소녀에게는 부드럽게만 와 닿아, 옥희는 그에게 몸을 던져 오히려 행복이라는 정의를 안 것 같았다. 열정의 순간에도 남자의 눈길이 대상을 너머 딴 곳으로 쏠린 까닭은 어쩔 수 없는 초려(焦慮)를 눈앞의 대상에게 마구 부딪쳐 처리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옥희는 그를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 선택이란 대개의 경우 숙명이라고 불리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현민이 지하 독립 운동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일본 지바 형무소에서 옥사한 것은 이듬해 봄이었다. 그리고 옥희는 초여름 어느 맑은 날에 여아를 사산(死產)했다. 옥희와의 사연은 순국 지사 현민의 경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옥희에게는 모든 일이 속절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전옥희 여사가 언제부터 딱한 인물이 되어 버렸는지 자세히는 아무도 모른다. 의젓한 말솜씨하며, 점잖은 태도에 끌려 대접을 해 줄양이면 그만 호되게 기대 오는 배짱에 학질을 떼어야만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언제나 도도했다. 현민이 작가로서나 독립 운동가로서나 잊지 못할 존재였다는 사실은 해방 후 처음 안 일이었으나, 그의 사랑을 입은 바 있는 자랑이, 찢기고 허물어진 그녀의 생존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다.

전옥희 여사의 말을 빌리면 왠지 무릇 남자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는 숱한, 숱한 남자들과 어울렸다. 그러나 그런 일은 추문(醜聞)에까지도 이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추문이란 줄곧 뭇사람의 입초시에 오르내리게 마련이지만, 그녀의 경우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대개는 상대방 남자들의 어처구니없다는 도리질로 끝이 났다.

첫사랑의 남성이 너무, 너무 기막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느끼는 건 환멸 밖에 없다는 것이 전옥회 여사의 넋두리요, 또 확신이었다. 이마 양옆이 패어 올라가기 시작한 초로(初老)의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곤 그로테스크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 듣는 사람 입엔 쓴웃음이 번진다. 이상의 남성을 찾느라고 —— 이런 말이 곧잘 튀어나오는데, 오십에 손이 닿는 안면 근육은 연령에 충실하여 전옥회 여사의 진짜 나이를 알 수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비탈길로 병실을 돌아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거짓 없는 표정이 아로새겨 있다. 순수한 감정이 밀착된 시들은 얼굴 가득히 퍼져 있는 것은 심려(心慮) 그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언덕위의 젊은 한 쌍이 어린 채 있다.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미연을 맞던 그 청년의 무열의(無熱意)한 태도——이윽고 미연의 한들거리는 꽃술처럼 애련한 모습——그것은 하나의 절정이었다. 다른 말을 쓴다면 위기이기도 하였다. 하나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려는 순간——전옥희 여사는 현기증을 느꼈다. 스스로도 속고 있던 온갖 군더더기투성이의 상념이 말끔히 걷히고, 체면 없이 외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미스 송! 조심해! 여자란, 여자란 한 번밖엔 승부를 할 수 없는 거야. 아무에게두 져선 안 돼! 열정에두, 연인에두, 자신에두!"

그리고 또 얹어 마음으로 외쳤다.

'나를 보란 말야! 나를.'

이 말은 전옥희 여사가 일생을 통해 처음 외친 부르짖음이었다. 벌거벗은 자기를 스스로 정시한 외침이었다.

아무 일에나 건성으로 집적거리던 그녀가, 이처럼 어느 일에 심각하고 집요하게 관심하여 본 일은 일찍이 없었다. 그녀는 왠지 미연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다시 한 번 허락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졌던 것이다. 허식과 굴욕과 멸시와 궁핍에 찬 자신의 삶을, 새로이 주어진 삶에서는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되었다. 같은 오욕과 불행이 닥친다면 모처럼 허락된 두번째의 인생마저 그녀는 구기고 찢어 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전옥희 여사는 숨이 차 왔다. 시계탑 앞에까지 가기가 아득하여 그녀는 외래 진찰소 모퉁이를 채 못 돌고 잔디 위에 앉았다.

어디서 떨어져 굴러온 것인지 노오란 은행잎이 발 밑에 흩어져 있었다.

후둑 후둑 둑 쏴아

저녁부터 불던 바람 소리에 빗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하얀 포플 린에 동화(童話)에 나오는 그림을 아플리케한 커튼이 드리워진 조그 만 방안은 바람과 빗소리로 오히려 아늑함이 더 느껴진다.

보라색 꽃무늬가 놓인 파자마를 입은 미연은 깍지 낀 두 손을 머리 밑에 받치고 눈을 감고 있었다.

황 간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경대 앞에서 화장을 지우느라고 부산하다. 화장을 하지 않았으나 저녁이면 얼굴을 씻고 자는 버릇이 었지만, 오늘따라 나른하여 미연은 이내 자리에 든 것이다.

11월에 들어선 기후인데 방안에는 불기가 없다. 그러나 젊고 고른 체온이 넓지 않은 방에 퍼져 공기는 오히려 다사롭다. 낮에는 빛깔을 몸에 붙일 수 없는 생활인 만큼 벽에 걸린 붉은 스웨터랑 하늘색 스커트 같은 것이 옷이라기보다 장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고운 방이다. 이 고운 방에서 황 간호사와 미연은 밀어(密語)처럼 정다운 말도 하

고, 때로는 병원측에나 환자에게 대한 불평을 쏟아 놓는다. 황 간호사는 곧잘 자신의 실연 이야기도 한다.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한숨을 쉰다. 대개는 그가 말하고 미연이 듣는다. 이날 밤도 황 간호사는 입을 가만두지 않았다.

"얘, 그 전옥희 씨 말이야."

그녀는 말을 꺼냈다가 얼굴을 거울 가까이 가지고 갔다. 입 언저리 에 돋아난 여드름을 손톱으로 누른 뒤에 잊지 않고 말을 잇는다.

"오늘 교실에 갔었지. 내가 차트 들고 따라갔댔어."

미연은 대답이 없다. 흔히 있는 일이라 황 간호사는 개의치 않고 나간다.

"온 오십이 다 된 사람이 어찌나 수줍어하는지. 학생들이래야 아들이라두 몇 번째 아들은 될 텐데. 하여튼 좀 어색해."

그녀는 콜드 크림을 편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 시 말이 멎었으나 이내 또 입이 열렸다.

"그저께 또 엑스레일 찍었지. 근데 닥터 김이 그러는데 아주 말이아니래. 양쪽 폐가 엉망인데 위까지 전위(轉位)가 됐다잖아. 얘, 너그이 요즘 붓기 시작한 거 몰랐어? 인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대. 그런데 그인 그렇게 보채지 않거든. 다른 사람 같음 고통이 굉장할 텐데. 신경이 둔한 건가? 참을성이 많은 건가."

미연은 여전히 대꾸가 없다. 황 간호사는 시들해졌는지 이마를 몇 번 더 두들기고 나서

"불 끌까?"

하고 묻는다. 대답이 없자,

'얘가 오늘은 왜 이렇게 곤드라졌을까?'

입속에서 중얼거리고 불을 끄곤 침대에 턱 몸을 던진다. 용수철이 한참 소리내어 튀긴 후 잠잠해지자, 바람 소리가 다시 두드러졌다.

미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누워 있는 침대가 자꾸만 솟아올라 누운 채 자기 몸을 솟구쳐 올리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무슨 까닭일까. 미연은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종민이라는 이름이 부풀어 누리를 채우고 큰 음악이나처럼 그의 낮은 음성이 귓전에서 울리는 것이다.

내일은 일요일. 종민은 버릇인 아무렇지도 않은 무열의한 태도로 만나자고 했다. 장충단에 있는 아버지 집은 5백 평이 넘었으나 그는 홀로 집을 나와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 하숙이 서울에서 가장 더러 운 동리의 하나인 중림동에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일이 있었다.

"내 내부의 풍경이 바로 그 동네와 같단 말이야."

미연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대로 문득 무섭다고 느꼈다. 그러나 무섭다는 건 어느 경우 오히려 자력(磁力)을 지니기도 하는 것이다. 미연은 그 때부터 그 하숙이 궁금해졌다.

내일은 일요일. 종민은 심드렁한 말투로,

"내 하숙에 한번 와 보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깐 미연은 내일 종민의 하숙에 가게 된다. 언제나 종민의 말은 권유가 아니고 요구 아니면 명령이었던 것이다.

종민은 여태껏 미연의 손도 잡아 본 일이 없다. 몇 달을 만나 오며 그저 덤덤한 것이다. 그러면서 살뜰하다.

미연은 갓 핀 박꽃보다도 순결했지만, 종민의 그런 태도가 때론 불 안하다.

--- 난 정말 매력이 없는 여잔가 봐---

그리곤 이내 얼굴을 붉혔다. 그는 왜 자꾸만 찾아오는 것일까.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장난으로 빈정거리는 것일까.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사랑한다면 좀 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장난이라면 그토록 소중히 아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소설에서 읽은 돈환처럼 기교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

어쨌든 내일은 더러운 동네에 있다는 그의 누추하고 좁은 하숙방에서 단 둘이만이 얼마를 지내게 된다. 거절할 기력은 없다. 무슨 일

이 벌어지려나. 불안한 것은 처녀의 본능이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이 야릇한 기대는 몇 달을 손목 하나 잡지 않고 끌어 온 그의 기교 때문일지도 모른다.

미연은 종민을 알 수 없다. 부호의 맏아들이며 유능한 건축가란 외적 조건은 안다. 외적 조건만도 자기와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데, 좀더 본질적인 점에 이르러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곳에 그가서 있는 것만 같다. 열한 살이나 연령이 벌어져 있는 까닭만은 아닌 성 싶다. 인생의 하나하나가, 지나는 현상의 모습마다가, 경이(驚異)를 자아내는 자기의 어림에 비하여 언제나 시들먹한 그의 태도는전연 상반된 경사(傾斜) 위에 각기 서 있는 것 같은 이질감을 주는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 있든, 전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였다. 인생이 이제부터 전개되리라고 믿는 미연 앞에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겪어 버린 뒤의 덤덤해져 버린 인간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그의 그 의식의심층(深層) 속에 애정을 보려고 한 것은, 미연 자신의 애정이 그만큼애틋하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종민의 생활은 친구들 간에서도 상당히 유명했다. 변태자란 사람이 있나 하면, 그만큼 진실한 사람은 없다는 평이 돌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이킹에 같이 갔던 친구의 오빠는 그를,

"너무 깊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에서 빠져 나가 버린 진실한 사나이야." 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6・25 사변 때 고향인 재령에로 국군을 따라 올라갔다가, 후퇴하는 바람에 섬으로 몰려 거기서 UN군의 게릴라에 가입하여 3년을 지냈는데, 어학력 때문이었든지 나이 어린 그가 대장이 되어 본의 아니게 지휘를 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서 가장 더러운 동네가 곧 자기의 내부의 풍경(風景)이라고 한 진의는 모르나, 하여튼 이 섬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잃고 다른 무엇인가를 얻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흔히

들 말하는 부조리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일은 종민의 하숙에 간다. 언젠가 그가 역시 혼잣말처럼 뇌인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사람이란 일부러 자기에게 지독히 불리한 바보짓을 의식하여 하려는 때가 있지."

미연은 어둠 속에서 감았던 눈을 다시 떴다. 형용키 어려운 감동에 가까운 감정이 솟구쳤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의 또 하나의 측면을 아는 것일 게라고 느꼈다. 이때 사랑은 그녀에게 있어 승부(勝負)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확증(確證)하려는 의지였던 것이다.

이상한 안도와 평화가 미연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포근한 잠 속으로 떨어져 갔다.

얼마를 잤는지 모른다. 옆에서 부산을 떠는 황 간호사의 소리에 잠이 깼다.

"얘가 초저녁부터 곯아떨어져 놓곤 몇 신데 이때껏 늦잠이야. 밭을 매구 왔나, 논을 매구 왔나."

미연은 반은 감은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흰 커튼 너머 창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빗소리가 여전한 것으로 보아 날은 여전히 궂은 모양이다. 방안이 냉랭하다.

"얘 굉장히 추워졌다. 살얼음이 잡혔어. 궂은비 때문인가 봐."

황 간호사는 자리옷 위에 주책스러울 정도로 빨간 가디건을 걸치고 옹송그리고 서 있었다.

"그런데 네가 너무 곤히 자길래 아깐 깨우지 않았지만 너 오늘 외출 틀렸다. 오늘 당번인 주 간호사 말이야,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네가 대신하게 됐어. 얘 늦었다. 빨랑 서둘러야지."

미연은 한꺼번에 잠이 깨었다. 외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종민의 하숙에 가지 않게 된 것이다. 처음 스친 생각은 우선 안도감이었다. 긴장이 탁 풀리자 조금씩 조금씩 허전함이 스며들었다. 간호사로서의 엄격한 수련은 마음의 소재와는 달리 민첩한 행동을 취하게끔 되어 있었다. 의사(意思)의 전달 없이 그녀는 몸차림을 하고 병동 쪽으로 걸어갔다. 언제나처럼 가볍고 건강한 걸음걸이로. 이윽고 언제나와 같은 일과 속에서 그녀는 이제 완전한 간호사였다. 타인의 고통의 주변에서 살면서 때로는 혐오하며 때로는 함께 아파하는.

여섯 시가 되면 짧고 긴 두 개의 시계 바늘이 직선을 이루듯 어김 없이 검은 시간이 된다. 미연은 차트와 검은계가 담긴 나무상자를 들 고 6호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황 간호사가 살얼음이 잡혔다고 떠들 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춥다. 와삭와삭 소리가 나도록 풀을 먹인 새하얀 간호복이 청결감보다는 쓸쓸한 느낌을 더 준다.

그녀는 한 번 으스스 떨고 문을 노크했다. 한 방에 여러 환자가 잡거하는 경우, 노크에 대한 대답은 기대키 어려웠지만 그녀는 반드시노크를 잊지 않았다. 대답을 받은 것으로 치고 방문을 연다. 뭇사람의 체온과 병질이 가지는 독특한 취기가 여느 때같이 농후하지가 않다. 방에 싸늘하게 냉기가 도는 까닭이리라. 창이 희뿌옇게 밝아 오건만 아무도 자리에 일어나 있는 사람은 없다. 새벽부터 부지런을 떠는 마산 할머니도 국방색 군대 담요를 손녀딸과 함께 뒤집어쓴 채둘이 눕기엔 좁은 침대 위에 떨어질 듯 떨어질 듯 위태로운 자세로 누워 있었다. 모두 침상에 들어 있으며 눈이 떠 있다. 방에 차 있는 것은 냉기라기보다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이라고 막연히들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미연은 언제나처럼 창가에다 검온계가 든 나무상자를 갖다 놓았다. 이윽고 방에 있는 여섯 사람을 위하여 반창고로 칸막이를 한 유리 글라스에 꽂힌, 여섯 개의 검온계를 뽑아 침대마다에 돌렸다. 환자들은 한결같이 신열에 신경을 쓴다. 모두 소중히 받아 혀 밑에 수은주(水銀柱)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좀 색다른 일이 생겼다. 미연이 여느 때처럼 검

온계를 침대마다에 나누어 주고, 끝으로 외팔 여직공 차례가 왔을 때였다. 여직공은 받은 검온계를 입에 물지 않고 한 쪽만 남은 손에 움켜쥔 채, 힘껏 침대의 틀쇠에 내리쳤다. 동강이 나 방바닥에 떨어지는 검온계를 보자 그녀의 광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그녀는 한 팔을 잃고부터 균형 잡기가 힘드는 몸을 기우뚱거리며 날쌔게 침대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마구 짓밟았다. 삽시간의 일이었다. 모두들 말을 잃고 그녀를 지켜볼 따름이었다. 여직공도 말을 하지 못했다. 흥분이 격하여 발성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 만에야 마산 할머니 입에서 탄성 같은 것이 흘러 나왔다. "아이고 씨 오마이야!"

그러자 여직공의 입이 열리고 수챗구멍에서 구정물이 마구 흘러나오듯 악담과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열은 왜 재는 거야. 돈 안 드는 일이니깐 이만큼 돌봐 준다는 표적만 보이겠단 말이지. 우린 간밤에 얼어 죽을 뻔했다! 돈 있는 놈들이 들고 있는 특등실이랑, 일등실은 후덥지근하도록 방이 더워 문틈을 터서 환기를 해야만 했을 거야! 이 방에두 무료 환자만 있는건 아냐. 삼등이라도 유료 환자두 있단 말이야. 있는 놈이나 없는 사람이나 겨울이 오면 춥다. 한 지붕 밑에서 어느 놈은 더워 허덕이구, 어느 놈은 추워 오그라져야 되나!"

복도가 소란해졌다. 음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달려오고, 경환자가 몇 사람, 간병인이 얼마, 구경 삼아 문 앞에 모여들고 있었다.

나이 찬 간호사는 냉정했다. 파랗게 질린 미연을 가리듯 앞에 서서 차분히 까닭을 묻는다. 이쪽은 까닭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마구 흙탕물을 튀기는 심술이다. 처음엔 어느만큼 섰던 말의 조리도 떠드는 동안에 엉망이 되었다. 그러나 능한 간호사는 말을 가려 들었다.

"비가 내리더니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군요. 아직 십일월두 초순

이구 보니 스팀 때긴 이르구. 어중간해요. 곧 유단포를 넣어 드리기 루 하죠."

"유단포? 쓰다 버린 링게르 병에 노는 불에 얹어 데운 물을 담아다 주겠단 말이지. 싫어. 우리 무료 환자가 있는 방에두 특등실처럼 스팀을 넣어 달란 말이야."

여직공은 흩어진 머리를 흔들며 한 손으로 마구 삿대질을 한다. 창 옆 침대에서 간밤의 추위로 부쩍 기침이 심해진 전옥희 여사는 나른히 누운 채 줄곧 미연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떨렸다. 어리고 고운 소녀가, 그리고 언덕 위에서 그 무열 의한 청년 앞에 애련히 서 있던 그 소녀가 이 더러운 말의 폭력(暴力) 앞에 어린 새처럼 떨고 있는 것이다. 여직공의 자포자기를 짐작 못할 바는 아니나, 개인의 불행(不幸)이란 깃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광스러움은 깃발이 되어 나부끼되, 불행의 깃발은 내리감아서, 잠 잠히 양(量)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옥희 여사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반신을 일으켜 여직공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이윽고 역시 무의식 상태에서 입이 열렸다. 참다 못 한 말이 새어 나왔다.

"억짓말은 말자구, 색시. 떠들어 여러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특등실에두 스팀이 들어오진 않아. 기관실이 하나니깐 거기 스팀이 들어오게 되면 싫어두 여기두 들어오게 될 게 아뉴? 여러분들이……."

그녀는 숨이 찼다. 말을 끊고 간곡한 표정으로 미연의 얼굴을 지켜 본 후

"모두들 애써 돌봐 주시는데……"

그러나 그녀는 말을 마칠 수가 없었다. 홍수 때 흙탕물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듯, 여직공은 맹렬한 기세로 전옥희 여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뭐 어쩌구 어쨌다구요! 이 얼간이 같은 노파가. 당신은 뭐예요.

무료 환자면서, 교양이니 지성이니 무슨 잠꼬대야. 혼자 귀족 같은 얼굴을 허구, 혼자만 점잖구 의젓허구. 기가 막혀서. 여봐요! 전씨 할머니, 당신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나 허슈?"

나이 찬 간호사가 당황히 그녀 앞을 막아 섰다. 그러나 여직공의 기세는 더욱 높아만 갔다.

"잘 들어 두어요. 당신은 머지않아 죽는단 말이야. 폐암 —— 하하 ······ 이왕 죽으려면 파편에 맞아 죽느니보담 원자탄에 맞아 죽는 것이 죽는 것 같거든. 시시한 병으로 죽는 거보담 폐암이면 떳떳허지요. 떳떳해."

방안에 침묵이 쫙 깔렸다. 금속성(金屬性)의 무음(無音)이 있다면, 바로 그런 긴장에 찬 침묵이 방 공기를 압축시켰다. 아무도 입을 열 지 못하는데 여직공의 높은 소리가 다시 흘러 나왔다.

"그뿐인가 당신은 죽으면 부검(剖檢)을 받는 거야. 죽어 시신두 못 지닌단 말이야. 알량한 귀족이지."

처음, 전옥희 여사는 여직공의 말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치매(痴呆)처럼 눈을 멀뚱히 뜨고, 날치는 여직공을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전옥희 여사는 다음 순간 무엇에 얻어맞기나 한 것처럼 정신이 깜박거렸다. 갑자기 미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여직공의 말은 그녀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으나, 말없이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가는 미연의 마음을 읽고 그녀는 사태를 직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래 자랑인 모양이죠?"

미연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며 전옥희 여사를 쳐다보았다.

"노래 자랑?"

"네, 창경원에서 가끔 있어요. 벚꽃놀이 때랑 무슨 행사 때마다.

지금은 단풍놀이가 한창인가 봐요."

개된 경치가 희한하다.

"바람결에 여기까지 들리는 게로군."

"네, 애기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 올 때두 있어요. 동물들이 포효하는 건 늘상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지만, 창경원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건 참 즐거워요."

"그래, 뜻하지 않았던 단풍 구경을 할 줄은 몰랐어." 하고 전옥희 여사는 눈 위에 한 손을 얹어 햇살을 가렸다. 며칠 전에 났던 추위 소동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소춘(小春)의 다사로운 날씨 였다. 비번(非番)이라는 미연이 그녀를 옥상에 데리고 올라간 것이 다. 전옥희 여사는 옥상에 온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바로 눈앞에 전

단청을 다시 올린 홍화문(弘化門)이 전찻길에서 볼 때와는 딴판으로 곱다. 원내(苑內)의 건물이며, 나무와 연못, 그런 것에 어울리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까닭인가. 미연의 말대로 단풍이 한창이다. 벚꽃놀이 때처럼 사람은 많지 않다. 저마다 다른 빛으로 단풍진 나무들이 구름 한 점 없는 파아란 하늘을 배경으로 타고 있다. 연못이 보이는 위치에 걸린 로프 웨이를 케이블카가 움직임에 따라 햇빛에 반짝였단 이내 그늘졌다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동물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새 그물이 쳐진 쪽으로 새들이 검게 모여들고 있었다. 후조(候鳥)들이 먼 길을 가며 그렇게 잠시 날개를 쉬어 가는 것일까.

어디부터선가 돌 깨는 소리가 들린다. 대패질 소리, 망치 소리도 얽혀 들린다.

전옥희 여사는 시선을 당겨 병원 구내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눈 밑 공터에 무슨 건물인지 오층집이 지어지고 있었다. 공사장에는 목재, 석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너저분히 늘어져 있고, 굳건한 세사나이가 돌을 타고 앉아 돌을 쪼개고 있었다. 반쯤 완성된 건물 안을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한다. 인간의 영위(營爲)——생활이 거기 있었다. 전옥희 여사에게는 모든 풍경이 정답고 아름답게만 보인다.

언젠가 들은 말이 머리를 스친다. 결별의 눈으로 볼 때, 그 풍경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 누구의 말인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실 감한 후 한 말이리라.

그러면서 아직은 죽음이 그렇게나 가까이 다가선 것 같지는 않다. 웃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이렇게 죽겠다는 엄청 난 말이 일상어(日常語)가 된 나라에서 산 까닭인가. 아니면 죽음이 란 순시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있는 것이어서 사람은 일 순일순을 죽어 가고 있고, 그러니깐 일순일순이 죽음의 미분치(微分 値)일지도 모르기 때문인가.

그 아침의 소동 이래 미연은 전옥희 여사에게 용태라든가 기분을 물은 일이 없다. 좀더 정답게 소중히 돌봐 주게 된 이유는 그날 아침 여직공의 기세에 굽히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바른 말을 해 준 고마 움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고 싶은 눈치였으나, 죽음의 직면에서 어떤 예지(叡智) 같은 것을 가지게 된 전옥희 여사는 어렴풋이 까닭을 알 것 같았다.

죽음이 가지는 어느 특권적 상대 —— 그 속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것이다. 나무의 열매들이 열매마다 각기 다른 저 자신의 과핵(果核)을 갖고 있듯이, 사람도 저마다의 죽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일생을 엉뚱하고 치사하게 남을 괴롭히며 살아온 그녀는 다섯 자가 약간 넘는 육신이 전 내용이었고, 확실성이었다. 다른 한계에 생각이 미친일은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누구나가 애당초는 거의 등량(等量)의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일지 누가 알 것인가. 전옥회 여사는 그 주책스러운 희망과 기획을 입에 올리지 않고부터 퍽이나 생각 깊은 인상을 주었다. 주책에 눌려 찌푸려졌던 슬기가 조금씩 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기나 한 것처럼.

요즘 와서 전옥희 여사는 밤이 무서웠다. 부기가 눈에 뜨일 정도로 올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요의(尿意)가 빈번해진다. 그러면서 시원 스럽게 배설을 할 수 없는 것이 징후인 것인데, 전옥희 여사를 괴롭 히는 이유는 딴 데 있었다.

소변이 보고파 얕은 잠이 깬다. 일어나 용변을 해야만 되는데 그녀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가 큰 곤충이며 누군가의 손으로 채집되어 커다란 핀으로 꽂혀 있는 것 같은 공포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핀은 언제나 가슴에 꽂혀, 사지를 허위적거릴 뿐 그녀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배는 자꾸 시원히 쏟아 버리지 못하는 소변으로 불러 오르는 것이었다.

전옥희 여사는 밤에 잠이 깨어도 눈을 뜨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잦았다. 병실 벽은 이등분하여 위는 흰 카세인을 바르고 아래는 연초록으로 칠했는데 두 가지 색이 잇닿는 데에 짙은 초록색으로 선이 쳐져 있다. 괴로운 잠에서 깬 눈앞에서 이 초록색 선이 꿈틀거리는 것이다. 꿈틀거리는 선은 어느덧 벽에서 벗어나와 그녀 몸을 감는다. 드디어는 꽁꽁 묶어 버린다. 그녀는 이 초록색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밖에도 깔고 누운 매트리스 속에 든 것이 아무래도 짚이 아니고 바늘만 같아 땀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부검에 대한 공 포는 가진 일이 없다. 사람은 너무나 또렷한 현실엔 오히려 실감을 갖기 어려운 까닭인가.

전옥희 여사는 시선을 좀더 뻗어 한길로 옮겼다. 그리 번잡한 거리는 아니지만 전차가 간다. 버스, 시발 택시, 세단, 자전거가 간다. 살아 움직이는 거리다. 창경원 돌담을 끼고 원남동 쪽으로 한 쌍의 젊음이 걷고 있다. 버젓이 팔을 낀 떳떳한 모습이다. 결혼한 사일지도 모른다. 그리 보아서 그런지, 한복 긴 치마를 느려 입은 여자의 복부가 약간 두드려져 보인다.

전옥희 여사는 신기한 것이나처럼 열심히 그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젊은 한 쌍은 젊은 걸음으로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인상은 전옥희 여사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미연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언덕 위에서 그

청년 앞에 섰던 모습을 보고 애태웠던 안타까움이 되살아 왔다. 그때 그녀는 미연을 통하여 다시 바른 삶을 멋들어지게 살아 보겠다는 도착(倒錯)에 빠져 바둥대었던 것이었으나, 봄처럼 다사로운 늦가을 의 햇살 아래서 타는 단풍을 멀리 보고, 발 아래 인간의 영위하는 소리들을 들으며 어렴풋이 떠오르는 상념을 그녀는 더 밀어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점점 또렷해져 와서 확신으로 굳어 갔던 것이다.

미연이 그 청년에게 순결을 바쳤는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고, 그 관능과 환희의 절정이 곧 부검에 이르는 여자의 운명에 직결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인이 말하듯 '성(性)'이란 인간의 귀속(歸屬)을 확증하는 축제의 자리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었다.

전옥희 여사는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다시 한 번 인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같은 치우(癡愚), 같은 실수와 고통에 찬 길을 되풀 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였다. 그것은 패 배를 정당화함으로써 인생을 긍정하려는 뜻이라기보다는, 죽음 앞에 선 사람만이 가지는 하나의 깨우침이었다.

그는 어느 감동으로 몸이 떨렸다. 부드러운 음성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다.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히 눈같이 쌓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조로

"미연이라구 불러두 좋지? 내 아기."

뜻밖의 말에 미연은 놀라, 창경원 쪽으로 머물렀던 고개를 돌렸다. 전옥희 여사는 미소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본 순간 미연은 저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봄처럼 다사로운 늦가을 햇살아래, 누렇게 뜬 그 얼굴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전옥희여사는 나무토막처럼 옥상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갔다.

들것이 날라져 왔다. 전옥희 여사의 심장은 아직도 가냘프게 뛰고 있었다. 우락부락한 두 사람의 병원 작업부 손으로 들것에 실려 가 며, 전옥희 여사는 고향의 황톳길을 가고 있었다. 노오란 꽃수레에 타고 있는 것은 언젠가 보낸 정다운 사람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 같기도 하였다. 은행잎이 한꺼번에 떨어져 버린 늦가을 오후의 일이었다.

(1962. 10)